

- 주요 뉴스: 미국 6월 비농업고용 전망치 상회, 다만 전월을 하회하고 실업률도 상승
 - 영국 총선에서 노동당 압승, 키어 스타머 총리 취임
 - 가자지구 휴전 협상 급물살 가능성
 - 중국 인민은행 국채시장 개입 가능성 시사
- 국제금융시장: 美 6월 실업률 상승으로 연준 금리인하 기대감 증대 등이 영향
 - 주가: 미국 증시는 빅테크들의 강세로 2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
유로 Stoxx600지수는 상승 출발 후 경계감 등으로 0.2% 하락
 - 환율: 달러화지수는 미국 6월 고용지표 발표 이후 3주래 최저치로 하락
유로화와 엔화 가치는 각각 0.3%씩 상승
 - 금리: 미국 6월 실업률 상승으로 연준 금리인하 기대감이 강화되며 금리 하락
독일은 미국 영향으로 5bp 하락

※ 뉴욕 1M NDF 증가 1375.4원(스왑포인트 감안 시 1377.9원, 0.2% 하락). 한국 CDS 보합

		7/5일	7/4일	전일대비			7/5일	7/4일	전일대비
주가	미국	5,567.2	휴장	+0.54%	국채 금리 10y	미국	4.28%	휴장	-8bp
	유럽	516.60	517.54	-0.18%		독일	2.56%	2.61%	-5bp
	중국	2,949.9	2,957.6	-0.26%		영국	4.13%	4.20%	-7bp
	일본	40,912	40,914	0.00%	CDS 5y	한국	35bp	35bp	0bp
	한국	2,862.2	2,824.9	+1.32%		중국	60bp	61bp	-1bp
환율	달러지수	104.88	105.14	-0.24%	위험 지표	EMBI+	400.5	-	-1.56%
	유로화	1.0840	1.0812	+0.26%		VIX	12.48	12.26	+1.79%
	엔화	160.75	161.28	+0.33%		WTI유	83.16	휴장	-0.86%
	위안화	7.2683	7.2682	0.00%	원자재	구리	465.85	휴장	+2.59%
	원화	1,381.3	1,381.0	-0.02%		금	2,392.2	2,356.7	+1.51%

주: 주가는 미국 S&P 500, 유럽 Stoxx 600, 중국 상해종합, 일본 닛케이225, 한국 KOSPI.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.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(+/-는 절상, 절하). 자료: 블룸버그

금일의 포커스

■ 미국 6월 비농업고용 전망치 상회, 다만 전월을 하회하고 실업률도 상승

- 6월 비농업 고용은 +20.6만명으로 예상(+19.1만명)을 상회. 5월 수치는 +27.2만명에서 +21.8만명으로, 4월은 +16.5만명에서 +10.8만명으로 큰 폭 수정. 실업률은 4.1%로 예상(4.0%)을 상회하며 '21년 11월 이후 최고치 기록
- Capital Economics는 6월 일자리가 예상을 웃돌았으나 많은 일자리가 정부 부문이었다는 점과 이전 두 달간의 고용 수치가 하향조정된 점, 실업률이 올랐다는 점 등은 우려 요인이라고 지적
- Evercore는 6월 실업률 상승은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기 때문이며, 고용시장은 위험신호를 보내지 않고 있다고 평가. BMO Capital Markets는 6월 고용지표를 감안하여 미국 2분기 GDP 성장률을 연율 1.6%로 예상
- High Frequency Economics는 2분기 고용지표의 완만한 증가는 실업률 상승과 성장세 둔화와 맞물려 연내 금리인하 시나리오를 강화한다며, 경제지표들의 둔화세가 지속될 경우 연준은 다음 FOMC 회의에서 금리인하 논의를 시작하고 9월에 첫 인하에 나설 것으로 전망

글로벌 동향 및 이슈

■ 영국 총선에서 노동당 압승, 키어 스타머 총리 취임

- 4일 총선에서 노동당은 총 650석 중 411석(+211)을 석권하며 과반을 크게 상회. 집권 보수당은 121석(-250)에 그쳐 190년래 최저 의석수를 기록, 중도 성향의 자유민주당은 71석(+63), 극우 개혁당은 5석(+5)으로 첫 의회 진출
- 키어 스타머 노동당 대표는 총리 취임 연설에서 부의 창출, 국민보건서비스(NHS) 회복, 더 안전한 국경, 청정에너지 강화 등 선거 기간 동안의 공약을 열거하며 영국을 재건할 것이라고 강조
-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스타머 총리와 통화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속적인 지지 등 주요 현안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

■ 가자지구 휴전 협상 급물살 가능성

-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전화통화를 갖고 이스라엘-하마스 전쟁 휴전 방안을 논의한 가운데 미국 고위 당국자는 휴전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꽤 중대한 돌파구가 마련됐다는 의견을 피력
- 한편 로이터 통신은 하마스와 헤즈볼라가 휴전 협상의 상황, 이스라엘의 공격을 끝내기 위한 제안 등을 놓고 함께 논의했으며, 하마스는 가자지구 휴전 제안에 동의하고 헤즈볼라는 이를 환영했다고 보도

■ 중국 인민은행 국채시장 개입 가능성 시사

- 인민은행은 최근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국채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대형 금융기관들과 수천억 위안 규모의 중장기 국채 차입계약을 맺고 시장상황에 따라 이를 매각할 방침
- 중국 국채금리는 경제부진, 금리인하 기대, 안전자산 선호 경향 강화 등으로 금년 들어 큰 폭으로 하락했으며, 인민은행은 지나치게 낮은 금리가 금융시장 안정을 해치고 위안화에 부담을 줄 것이라고 경고

■ 뉴욕연은 윌리엄스 총재,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에 가야할 길 남아

- 연준의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한 노력에 큰 진전이 있으나 아직 2%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가야할 길이 남아 있으며,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잘 통제된 인플레이션 기대의 중요성을 강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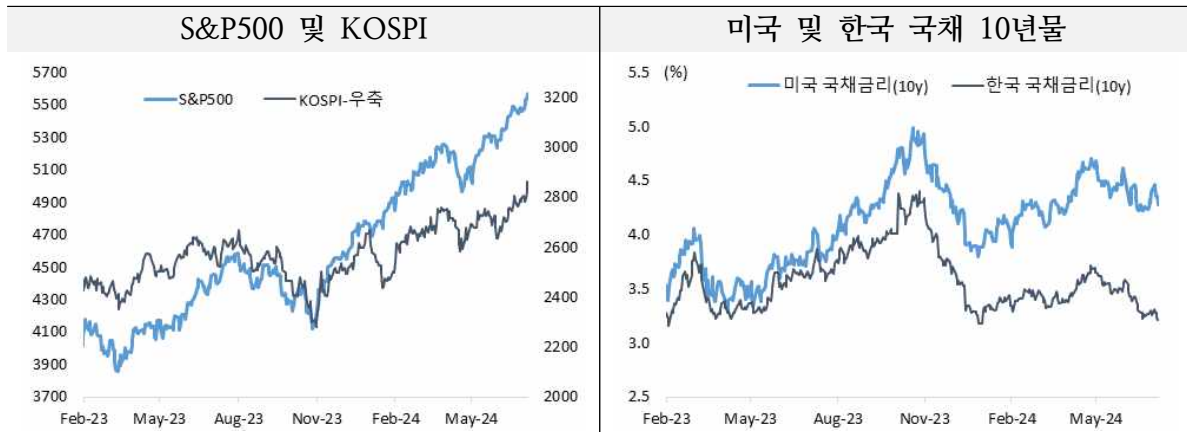
■ EU는 중국 전기차에 추가 관세 부과, 중국은 보복 조치 검토

- EU는 중국산 전기차의 관세를 기존 10%에 더해 17.4~38.1%p의 잠정 관세를 추가. 이 조치는 5일부터 발효되며, EU 15개국이 반대하지 않으면 11.2일부터 5년간 확정관세로 전환
- 중국 상무부는 이에 대한 보복으로 EU산 수입 브랜드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위해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오는 18일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으며, 추후 고배기량 가솔린차, 돼지고기, 유제품 등으로 보복 확대를 검토

■ 독일 5월 산업생산 전월비 -2.5%로 예상치(+0.2%) 큰 폭 하회

- 전년동월 대비로는 -6.7%. 연방통계청은 자동차(-5.2%)와 기계 및 장비 제조(-5.9%) 부문의 감소세가 전체적인 부진을 이끌었다고 설명. 독일 정부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내년까지 1,100억유로를 투입할 계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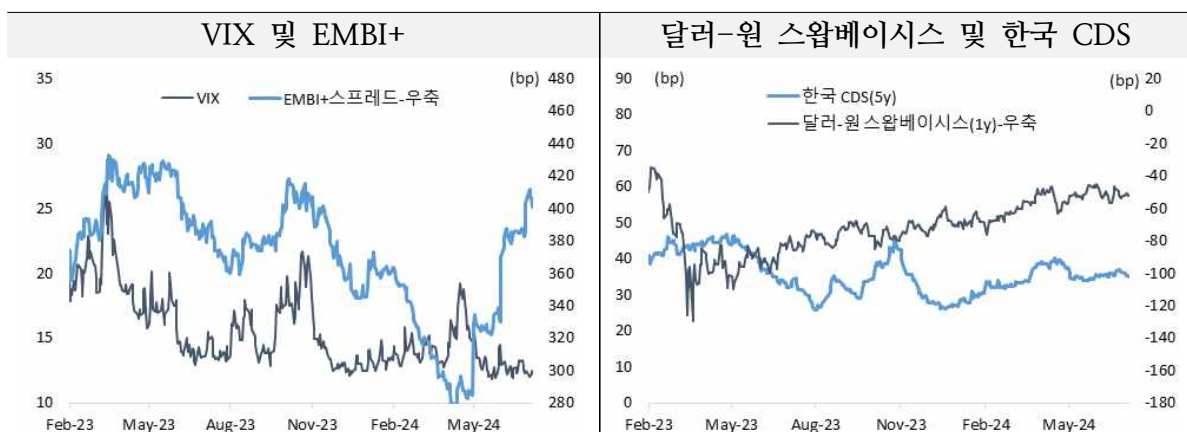
금융시장 주요 지표



자료 : Bloomberg



자료 : Bloomberg



자료 : Bloomberg

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;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문의: 02-3705-6231, E-mail jsch@kcif.or.kr